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설비 가동

UAE, 시공 6억달러 투입한 100MW급 건설 ... 2만가구 전력 보급

세계 최대의 태양열 발전설비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3월17일 가동을 시작했다.

아부다비는 세계 최대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 설비 샴스1(Shams1)의 가동을 공식 시작했다고 겔프뉴스를 비롯한 현지 일간지가 일제히 보도했다.

시공에만 6억달러가 소요된 샴스1은 최대전력 100MW급으로 2만가구에 전력을 보급한다.

아부다비의 미래에너지기업 마스다르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는 “샴스1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설비 가운데 세계 최대”라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베르는 또 샴스1의 가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2만5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 150만그루를 심거나 1만5000대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8>